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I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자동차 관세 예고 등 관세 우려 재점화에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6일(수) 미국 증시는 백악관의 자동차 관세 발표 계획, 중국 당국의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글로벌 무역 분쟁 이슈 재점화되며 엔비디아(-5.7%), 테슬라(-5.6%) 등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된 결과 3대 지수는 하락 마감 (다우 -0.31%, S&P500 -1.12%, 나스닥 -2.04%).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트럼프발 관세 노이즈로 인해 등락을 거듭하며 높은 변동성 장세를 연출하는 흐름. 최근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관세 정책에 있어 '유연성'과 '관대함'을 언급한 가운데 미 증시는 관세 우려 완화에 힘입어 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음. 그러나 이 날 백악관은 예정에 없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을 예고(장 마감 이후 트럼프는 '4월 2일부로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테슬라(-5.6%), GM(-3.1%) 등 관련주 급락.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미칠 경기와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이 날 무슬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관세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며, 28일(금)에 발표될 PCE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자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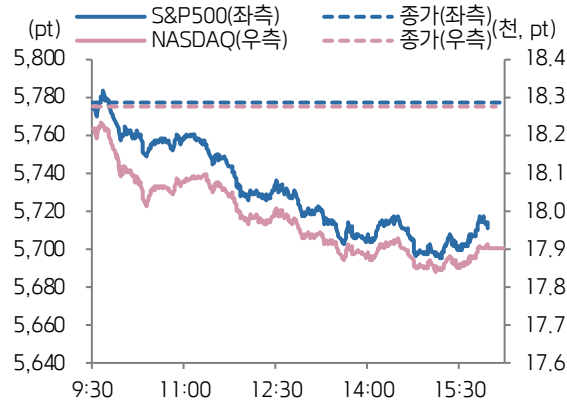
장 마감 이후 트럼프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에 이어 여전히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는 관대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 혼란을 가중. 결국, 4월 2일에 발표될 상호관세를 앞두고 최근과 같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현 시점에서는 조기에 미국 주식에 대한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며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투자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반도체, 2차전지 등 국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 양 지수는 상승 마감(코스피+1.08%, 코스닥 +0.73%).

금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발표, 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반도체주 부진(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3%) 등이 최근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한편, 영국의 경제성장을 전망 하향 조정 등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달러인덱스는 104pt까지 상승, 이는 결국 원달러 환율(1,466원)에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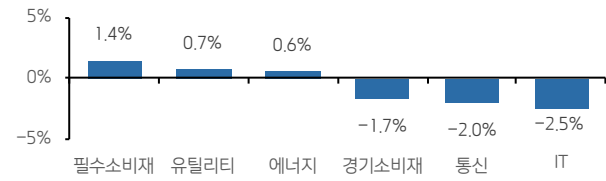
특히, 전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원달러 환율에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 이와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재개를 전후로 일부 주요 업종에 대한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며 경계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결국, 국내 증시도 4월 초 발표될 상호관세, 탄핵 선고기일, 공매도 재개에 따른 단기 변동성 장세를 거친 이후부터 재차 상승탄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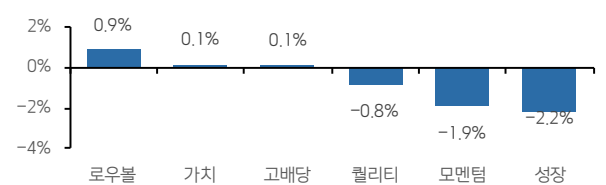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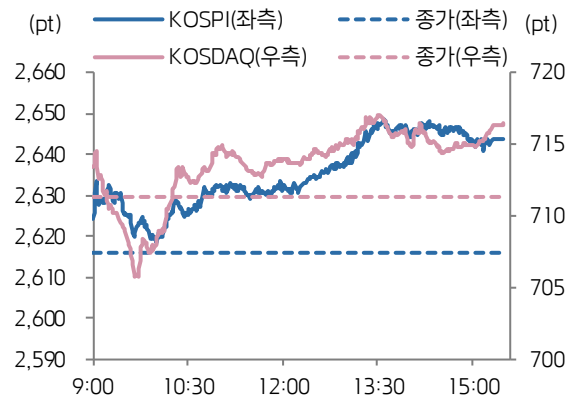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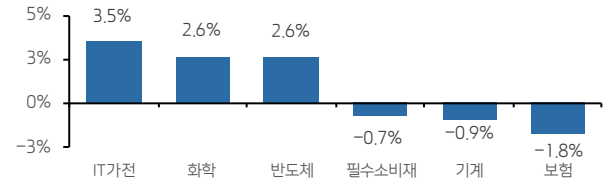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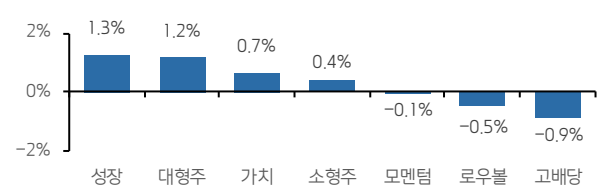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1.53	-0.99%	-11.44%	GM	50.95	-3.12%	-4.11%
마이크로소프트	389.97	-1.31%	-7.29%	일라이릴리	826.76	-3%	+7.28%
알파벳	165.06	-3.22%	-12.7%	월마트	85.21	+0.53%	-5.43%
메타	610.98	-2.45%	+4.44%	JP모건	251.03	-0.04%	+5.26%
아마존	201.13	-2.23%	-8.32%	엑손모빌	118.27	+1.44%	+10.93%
테슬라	272.06	-5.58%	-32.63%	세브론	167.97	+1.22%	+17.26%
엔비디아	113.76	-5.74%	-15.28%	제너럴일렉트릭	85.21	+0.5%	-5.4%
브로드컴	179.27	-4.78%	-22.44%	캐터필러	341.11	-0.44%	-5.62%
AMD	110.19	-4.02%	-8.78%	보잉	178.55	-2.21%	+0.88%
마이크론	92.13	-2.18%	+9.47%	넥스트에라	69.73	+1.7%	-1.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43.94	+1.08%	+10.19%	USD/KRW	1,467.30	+0.26%	-0.34%
코스피200	355.00	+1.11%	+11.7%	달러 지수	104.56	+0.36%	-3.62%
코스닥	716.48	+0.73%	+5.65%	EUR/USD	1.08	-0.34%	+3.86%
코스닥150	1,190.14	+0.67%	+5.34%	USD/CNH	7.28	+0.19%	-0.79%
S&P500	5,712.20	-1.12%	-2.88%	USD/JPY	150.57	+0.44%	-4.22%
NASDAQ	17,899.02	-2.04%	-7.31%	채권시장			
다우	42,454.79	-0.31%	-0.21%	가격	DTD(bp)	YTD(bp)	
VIX	18.33	+6.88%	+5.65%	국고채 3년	2.620	+1.5bp	+2.5bp
러셀2000	2,073.83	-1.03%	-7.01%	국고채 10년	2.853	+4bp	-1.8bp
필라. 반도체	4,508.74	-3.27%	-9.46%	미국 국채 2년	4.017	+0.3bp	-22.5bp
다우 운송	14,891.98	+0.58%	-6.31%	미국 국채 10년	4.352	+3.9bp	-21.7bp
상해종합	3,368.70	-0.04%	+0.51%	미국 국채 30년	4.702	+4.3bp	-7.9bp
항생 H	8,654.26	+0.44%	+18.72%	독일 국채 10년	2.795	-0.3bp	+42.8bp
인도 SENSEX	77,288.50	-0.93%	-1.09%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411.69	-1.16%	+10.53%	WTI	69.65	+0.94%	-1.21%
MSCI 전세계 지수	853.49	+0.21%	+1.45%	브렌트유	73.79	+1.05%	-1.14%
MSCI DM 지수	3,746.87	+0.3%	+1.05%	금	3,052.30	-0.07%	+13.38%
MSCI EM 지수	1,129.41	-0.58%	+5.01%	은	34.03	+0.09%	+16.38%
MSCI 한국 ETF	56.81	-0.46%	+11.63%	구리	521.60	+0.64%	+29.54%
디지털화폐				BDI	1,642.00	-0.61%	+64.69%
비트코인	87,286.31	-0.7%	-6.86%	옥수수	451.50	-1.37%	-3.06%
이더리움	2,010.75	-2.65%	-39.91%	밀	535.50	-1.43%	-4.8%
				대두	1,000.75	-0.1%	-2.1%
				커피	392.00	-1.64%	+24.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3월 2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